

## 설록 흥즈 뺨치는 추리력

(편집형 성격 장애)

살다 보면 이마를 들로 찍어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면도날’, ‘조-스’, ‘냉혈한’, ‘철면피’ 등으로도 표현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냉정하고 사람을 믿지 않으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다른 사람과 주위 환경에 대해 경계를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성격의 유형을 편집형(偏執型) 성격장애라고 부른다.

이들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도면밀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들에게 속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인해서 주위에 피딱한 사람으로 알려지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한다. 동시에 언제나 냉정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매우 방어적이며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사무적이고 냉철하고 능률을 중요시하며 매우 이지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내심으로는 대인관계에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며 불안과 갈등을 감추고 있다. 숨겨진 불안과 갈등은 때때로 “상대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 음모를 꾸민다”는 망상적 사고(妄想的 思考)로 발전하는데, 이 때문에 정당한 근거나 물증조차도 없이 배우자의 순결을 의심하는 의처증 또는 의부증에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직장 내에서 카리스마적(的) 지배로 부하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에 대해 가혹한 처우도 서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동시에 집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을 숨도 못 쉬게 하는 철저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한편 이들 중 의처증 혹은 의부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자신이 막연하게 제3의 인물과 성적으로 놀아나는 환상에 젖어 있고, 일부는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 분석적으로는 자신의 상상이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영동하게도 배우자에게 투사(投射: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이라고 여김)함으로써 내부의 평형을 이루려는 무의식적인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이들은 독일의 정신 분석가 에릭슨(E. Erikson)이 지적한 기본적 신뢰(Basic trust)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 때문에 일생을 통해 “피해와 속임을 당하며 산다”는 막연한 피해 의식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한다.

이럴 때 물론 그는 자신의 가혹성(加虐性)이 배우자의 '부정(不貞)과 비도덕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편집형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막연하게 배우자를 의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대단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경우에도 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발전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지 않는 이상은 정신과적 치료의 장애 노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

45세 된 A씨 부부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수 년 간 싸우다가 부부가 함께 병원에 오게 되었다. 진료실에서 남편은 처음부터 매우 근엄한 태도로 자신의 냉철하고 면밀한 판단력과 설록 흠즈같은 추리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허세를 보였다.

그는 아파트 옆 동의 '좀 잘 생긴 실직자'인 K씨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K씨와는 오래 전 아파트 부녀회에서 마련한 품물 시장에서 잠시 조우(遭遇)한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근거도 없이 자신의 아내와 K씨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뒷조사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 ○시 ○분에서 ○시 ○분까지 마누라가 집을 비웠으며, 그 시각은 K씨의 부인이 아이를 학교에서 태워 오기 위해 ○분간 집을 나가 있었던 시간"이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아내가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슈퍼에 갔었다"라고 항변하자 "바로 그 전날 함께 농협 공판장에 갔었는데 그 다음날 또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자신을 혼란시키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다"라고 맞섰다.

부인을 의심하는 사고방식은 매사가 이런 식이었고 이것은 언제나 대판으로 싸움질을 해대는 의례적인 과정을 밟았다.

부인은 이런 일이 일 년이면 몇 달이나 되고, 한동안 조용하다 싶으면 또다시 시작된다며 "살아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하며 한숨지었다.

그들은 서너 번의 면담 후 "일단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믿어 보겠다"며 진료실을 나간 후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추정컨대, 그 부부는 지금도 일 년이면 몇 달을 또 그런 막연한 의심과 추리의 쳇바퀴 속에서 쫓고 쫓기며 살아갈 것이다. 부인의 처지는 파리채밖에는 앉아서 쉴 곳이 없는 파리의 신세였다.